

John Oswalt 박사, Kings, 세션 11, 1부, 열왕기상 12-13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연구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이 분열되어 멸망을 초래한 솔로몬의 왕국이 둘로 분열된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삶. 우리가 거기서 본 교훈은 좋은 시작에 주어지는 트로피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마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처음 11개의 장은 이 책의 첫 번째 섹션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여기 12장에서 시작하여 16장까지 확장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죽음으로부터 50~55년, 우리가 생각하기에 930년에서 아합이 도래하는 850년까지를 망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죄송합니다. 저는 50년, 즉 870년에 아합과 그의 아버지 암리가 도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년 동안 11개의 장을 가졌고 이제 약 70년 동안 5개의 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1장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울처럼 여로보암 경을 죽이려고 했으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것이 여로보암과 다윗의 차이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피신했고, 표면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동안에도 유다 사람들과 계속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집트, 즉 이교 국가로 갔으며, 실제로 이집트에서 보낸 그 시절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여로보암을 불러오매 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청하더라. 사실 또 북쪽 지파들이 이미 여로보암을 불러오고 있었고, 이미 분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장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 및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의 두뇌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며 자신의 뜻과 인간의 자유 의지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 도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썄요,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둘 중 하나를 쓸 수 없는 상호 작용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서로 긴장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된 결론이었나요? 그렇죠.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면서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완료된 거래이지만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을 통해 완료된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가나안 족속의 노역이 아닌 북방 지파들의 노역을 맡은 여로보암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북쪽 지파들은 그의 지도력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들은 여로보암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4절,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니 이제 그가 우리에게 지은 힘든 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로보암이 반응했는지, 그들이 실제로 그를 섬겼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창조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매우 창의적이어서 우리를 조종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마도 사실 이 시점에서 왕국이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유인물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면, 솔로몬은 왕국을 12개 부분으로 조직했고, 12개 부분은 각각 매달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물자를 궁정에 공급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짐을 조이라면 여로보암도 허리띠를 조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더 긴장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님, 실례합니다. 르호보암은 현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상담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편하게 해야 할까요? 늙은 상담사들은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젊은 상담사들은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 내가 훨씬 더 강해질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큰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이 두 세트의 상담사가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궁금합니다. 글썄요, 미안하지만 저는 편견이 있어요. 내 생각엔 그 늙은이들이 현명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들은 '야, 꿀로 벌을 더 많이 잡는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았던 것 같다.

예, 당신은 이것을 할 여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양보할 여유가 있고 그들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이것은 표면적으로만 드러났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왜 다른 길로 갔는가? 글썄요, 처음부터 바로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과 함께 도망갈 것입니다.

글쎄, 거기에도 약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첫날에 무언가를 가지고 도망가도록 내버려두면 나머지 일년 동안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것이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공간을 주면 친절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세월의 지혜가 있습니다. 글쎄요, 르호보암이 말했듯이, 절대 안돼요.

아마 그 사람도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는 양보하고 물러서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야. 우리는 구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부릴 수 있고, 아마도 당신이 정말로 주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려면 매우 강한 남자, 강한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어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안에 안전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다는 관대함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르호보암은 강한 남자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북쪽 지파들이 물러날 때, 북쪽 지파들이 말할 때, 알았어, 알았어, 그게 너희 태도라면 우리는 여기서 나가 너희 장막으로 갈 때, 오, 이스라엘아, 그가 하는 일에서 그의 지혜가 부족함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철수에 대한 일반적인 문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3절에 보면 왕은 장로들의 훈계를 무시하고 엄하게 백성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15절,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께로 말미암음이라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르호보암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서 처음에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매우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진정한 선택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가 그랬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끈을 당기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왕국에서 일하시는 일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간의 선택과 신의 주권 사이에 긴장감을 갖고 있으며,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그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반면에, 명확한 말씀을 얻을 수 없고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며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잠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에 대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그분께는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일부가 되십시오. 우와.

그렇다면 여로보암에게는 진정한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가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다는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이루시려고 의도하신 일에 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떤 몫을 갖고 있습니까? 제시의 아들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가서 네 집을 돌보아라, 다윗아. 그 구절을 볼 때, 나는 북쪽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매우 의식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David에 대한 반복된 언급과 집에 대한 반복된 언급은 나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마도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쳐 다윗에게 집을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속적인 왕조를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글쎄, 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취하는 자세는 얼마나 위험한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가족, 교회, 가정, 사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다. 자, 다시 한 번,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이 분리되어 다른 길로 갈 것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네게 견고한 집을 주리라 말씀하셨느니라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나머지 책인 열왕기 상하에서 보는 것은 그러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여기 텍스트를 보면, 나는 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스로 이루시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친구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 그 일에 참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고 반대 편에 서고 싶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요한은 그의 책 요한¹서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왕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싶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